

■ ITS/BRE 시험협정

Intertek Testing Services(ITS)와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(BRE)의 화재연구소는 양사의 시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.

이에 따라 유럽의 회사들도 NFPA 262, “전선 및 케이블의 화재와 연기특성에 관한 시험방법 기준”에 의거한 ITS/ETL의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.

앞으로 ITS는 BRE가 제공하는 시험결과를 가지고 케이블 제품의 ITS/ETL 인증마크 부착여부를 평가하게 된다.

케이블의 내화성능을 측정하는 척도인 ETL 인증마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증제도이다.

— “Fire Prevention”(‘99.10)

■ Factory Mutual(FM) 합병

Allendale Mutual Insurance Company와 Arkwright Mutual Insurance Company, Protection Mutual Insurance Company, 그리고 이들의 공동 출자회사인 Factory Mutual사 등 4개사의 합병이 급년 8월초에 마무리 되었다.

FM Global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한 이 회사의 회장 Shiven Subramaniam 씨는 “이번 합병

을 통해 우리의 고객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, 연구분야에서도 보다 우수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앞으로 FM Global사의 고객들은 보다 개선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회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— “Fire Prevention”(‘99.10)

■ 3분기 美 자연재해 보험금 21억弗

ISO 집계에 따르면 올해 3/4분기(7~9월)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보험사들이 보상해야할 금액은 21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금액은 약 13억불로 추산되는 허리케인 플로이드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83만1천건에 달하는 주택, 기업 및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금을 합한 액수이다.

올해 3/4분기 대형 재해 손해는 지난 50년 전 대형 재해 손해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큰 금액으로 기록된다. 지금까지 자연재해 기록 역사상 최악의 손해는 지난 '92년 1백만여 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1백74억불의 보험금이 지급된 허리케인 '앤드류'에 의한 사고였다.

한편 3/4분기 손해를 포함하여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74억불에 달하고 있는데, 급년 중 가장 큰 사고는 5월 오클라호마를 덮

친 토네이도 및 폭풍으로 발생한 15억불에 달하는 사고였다.

허리케인 발생시준이 반박에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 미국에는 이미 8건의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숫자에는 홍수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.

홍수 손해보험은 주로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따라서 그 피해 역시 보험회사의 손해만 집계되는 ISO의 피해액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.

— “보험신보”(’99.10.25)

■ 인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배책보험가입 의무화 제기

지난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화재사고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은 삼성화재에 가입된 화재보험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보험가입금액은 건물 1억2천만원, 집기시설 8천만원으로 총 2억원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.

따라서 보험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만족할만한 보상이 불가능하고 건물주나 상가업주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만 가능하다.

그 동안 국내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주요 사고는 '71년 대연각호텔, '72년 서울시민회관, '74년 서울 대왕코너, '84년 부산 대아관광호텔, '99년 씨랜드 화재 등이 있다.

대연각 사고 직후 11층 이상 건물, 공장 등 연면적 3천㎡, 국유건물 1천㎡ 이상의 건물을 특수건물로 분류,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.

매번 대형화재사고 이후에는 안전책을 실시해야 한다,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며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일회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.

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 및 유흥업소, 오락장 등의 자영업자들이 유사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
— “보험신보”(’99.11.8)

■ 요율자율화 대책 마련 분주

2000년 4월부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는 손보업계가 최근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각 손보사는 지금까지 협정요율과 업계공동상품에 의한 비중을 줄여 나가기 위해 타사에 비해 차별화 되고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.

특히, 요율자율화가 이뤄지면 자동차보험 시장이 가장 큰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.

일반 종목의 경우 요율경쟁이 심하지 않고 손해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.

업계의 한 관계자는 “자보의 경우 요율자율화가 이뤄지면 상품·서비스에 차이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사업비 절감과 보상에서 결정날 것”이라며 “누가 더 저렴한 상품과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출하느냐가 관건”이라고 주장했다.

보상부분에 대한 상위사들의 아웃소싱과 중위권사들의 조직통합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.

또 자보시장에 외국사들이 좀더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

업계의 관계자는 “외국사들은 전국적인 보상망의 부재로 서비스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. 따라서 이들은 TM·CM을 주축으로 사업비를 절감, 가격경쟁에 나설” 것으로 예상했다. ☞

— “보험신보”(’99.11.8)